

로서의 청자색을 나타내지만 외관상으로는 찹쌀과 같이 보얗게 보인다.

이 변이체는 찰벼와 교잡하면 F₂ 종자는 모두 외관상 보얗게 보여 분리를 알수 없지만 옥도반응으로 살펴보면 청자색과 적동색이 3 : 1로 분리하는데 이 변이체를 쌀이 투명한 메벼와 교잡하면 찰벼 메벼 잡종에서와 같이 변이체의 보얀 쌀이 3분의 비율로 나타난다.

F₃ 종자에서도 위와 같은 단순분리 양식은 확인되었다. 이 변이체의 보얀 메벼형질의 연관군동정은 현재 진행중이다.

6. 기계이앙상자육묘 약제처리에 의한 들묘 및 입고병방제와 진묘육성효과

(작물시험장) 이종훈, 안종국[※]

기계이앙 상자육묘시 들묘 및 입고병방제를 위하여 다찌가렌외 3종의 약제를 처리하여 육묘하였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SF8002, Ridomil 등은 무처리에 비하여 초장이 커지는 경향이나 후치왕은 반대로 작아지는 경향이였다.
2. 입고병및 들묘발생은 무처리 32%, 다찌가렌 4.3%, SF8002, Ridomil 후치왕등은 병발생이 없었다.
3. 잎선단의 일비액량은 무처리에 비하여 약제처리 모두가 19-41% 증가하였고 일비액과 신근발생력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묘의 굴기력(각도)은 SF 8002 처리구가 가장 높았고 Ridomil 다찌가렌, 후치왕 순이었다.

5. 지상부 재생력은 Ridomil, SF8002 처리구가 좋았다.

7. 登熟期 気象条件이 벼알의 脱粒性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농대) 申辰澈[※], 薩容雄, 鄭昌柱

이앙기에 따른 등숙기 기상조건의 차이가 수도의 탈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탈립성이 큰 태백벼와 비탈립성인 진홍을 재료로 40일묘를 5월 11일부터 15일 간격으로 4회 이앙하고 출수후 40일 및 55일의 시기에 각각 벼알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작기 및 수확시기의 영향, 그리고 기상요인들과 탈립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 벼알의 인장강도는 각처리군 통틀어 진홍의 경우 214-251 g의 변이폭을 보였고 이 범위의 인장강도는 벼의 포장 손실에 무관하나 태백벼의 경우 인장강도는 127.5-204 g의 변이폭을 보였고 이앙기 및 수확시기가 탈립성 및 벼의 포장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

2. 벼알의 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태백벼의 경우 수확시기, 이앙기 및 이앙기와 수확시기와의 상호작용이 모두 컸으며, 특히 이앙기가 6월 25일일 경우 현저히 탈립성이 커졌다. 진홍의 경우에는 이앙기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수확시기